

향군-LH 1차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향군인회-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식

일시 2020. 11. 23.(월) 17:0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의향군인회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3월31일 까지

향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월13일부터 3월31일까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1차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상자 중 무주택 자로서 전국의 주요 도시 중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희망지역을 적어 신청하면 LH가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맞춤형 주택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 서류는 인터넷 상 향군홈페이지(<https://korva.or.kr/>)를 접속하여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접수는 이메일이나 FAX로 향군 경영본부로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LH가 사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2년 단위로 계약하며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향군과 LH는 지난해 11월23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이번이 첫 번째 시행사업이다.

향군성명

미 대통령선거 부정, 예비역 단체 음모론 규탄

본분 망각한 반국가적 행동,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국론분열 책동

향군은 1월11일 일부 군 예비역단체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함께 4.15총선의 사전선거와 개표부정을 주장하고 미국 대통령선거 부정 음모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예비역 장성단체로서 본분을 망각한 반국가적 행동”이라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향군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일부 군 예비역 단체의 음모론을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미국 대통령선거는 미국의 주권문제

이며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한 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선거는 민주국가의 주권문제이며 당사국인 미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미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우리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하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기본 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부 예비역장성들이 미국의 국내 선거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국론분열 책동이며 반국가적 행위”로 “국민들

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미국의 정권교체,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차에 따른 북핵 미사일 위협 증가 등 국가안보의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재향군인신문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열독율을 높이고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월호(835호)부터 아래와 같이 새 코너를 마련합니다.

◆특별기고/ ‘이달의 안보칼럼’ 신설

안보현안에 대한 각계 안보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 게재를 통해 회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고 안보단체 향군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제언/ ‘향군을 말한다’ (가칭) 시·도 회장 릴레이 기고

각 지역에서 향군을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 13개 시도 회장들의 향군 발전을 위한 제언, 그리고 활동성과, 모범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조직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연중기획/ 국난극복의 현장 : 호국산성을 찾아

반만년 역사 이래 수많은 외침으로 탄생했던 전국각지에 산재한 호국산성을 찾아 축성 배경, 역사적 의의, 전투상황 등의 설명을 통해 선조들의 호국의지를 본받고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난 1년간 연재됐던 ‘6.25특별기획 전적기념관을 찾아’는 지난 834호 장사상륙작전 기념관을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이란?

LH가 사전 매입한 주택을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접수기간 : 2021. 1. 4 ~ 3. 31
- 대 상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무주택자
- 임대조건 : 2년단위 계약 (20년까지 가능)
- 자격조건 /신청방법 : 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
- 접수처 : 재향군인회 경영본부
e-mail : kva0925@daum.net
FAX : 02-461-8645
- 문의 : 02-416-09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 : www.korva.or.kr

※본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안보칼럼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망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있는 가운데 1월20일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트럼프 시대는 정치적 극단주의와 보수진영과 자유진영간의 갈등으로 분열을 초래했던 시기였고 이제는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통합이 미국과 민주주의의 전진의 길이라고 강조한 뒤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시 세계 주도권의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 동맹관계 복원, 세계 주도권 회복

선거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취임사를 통해 미루어볼 때 향후 바이든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실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이로 인한 어려운 국내 상황을 극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서는 국내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 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반부패 등의 가치와 특히, 인종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보완하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상황의 효력정지, 파리기후협정,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WHO),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복귀하여 국제적 리더십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과 달리 버텀업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중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립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가능한 규범을 존중하면서 동맹국과 연합하는 한편 지역·국제기구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다. 기술, 안보, 전략 관련 문제 역시 압박적 접근을 예상할 수 있다.

끝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변화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러시아, 이란 등



권 동 용 강원도 향군 회장

핵보유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안보 도전에 맞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전략적인 우위의 선점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 먼저 한·미관계의 결림돌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협정 타결, 주한미군 유지 등은 순풍이 예상되나 북핵 해법에 있어서는 상향식 교섭과 원칙적 접근 등에서 타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미·중 역학관계 속에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의 참여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한·일 관계는 미국이 앞장서 정상화 조치요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우리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동참 요구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라 우리의 안보정책도 변화를 요구받게 됐다. 국익과 실리에 맞는 차별한 대응으로 북한 비핵화와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유지 및 연합훈련 재개 문제, 전작권 전환문제 등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대북, 대일 대중관계 등 안보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 협정 순풍 비핵화 위해 한미 협력동력 필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성향을 미루어 짐작할 때 향후 미국은 무엇보다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한·중,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대처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냉정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 미·북 대화에 있어 한·미 간 협력동력을 잃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1년 제1차 이사회 개최

향군은 1월26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직제규정 변경 안 ▶인사복무 규정 변경 안 ▶임원 선임 안 ▶선거관리규정 변경 안 등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병무청, 2021년 ‘나라지킴이 3대 가족’ 접수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가족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를 찾는다. 신청자격은 3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이다. 3대는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이며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며 2월 11일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은 내년엔 심사한다.

재향군인회 모바일앱 안내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 앱은 재향군인회 소개, 정회원 가입, 향군가맹점 등 재향군인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향군 정회원 온라인 가입 및 향군 가맹점 보기, 시·도회, 시·군·구회 활동 소식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쉽게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대상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군번소지자)

정회원 가입회비

영관 5만원 / 위·부사관 2만원 / 병 1만원 ※ 평생 회비로 1회만 납부

정회원 혜택

1.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2.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10%~30%)
3.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4.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5.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6. 기타혜택(복지물 등)

APP 다운로드 방법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②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를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국가 보위 ·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 완수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는 올해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미래강군으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을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7개 과제를 강조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 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아울러 북 핵·WMD를 억제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대비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II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간다.

아울러 접경 지·해역, 해안 감시·감지 능력을 보강하여 경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과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 19, 재난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지원 체계를 보강하고 테러 위협대비 군의 대테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2021년에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 나간다. 남북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한다. 북한이 호응시 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습지·생태조사 및 'DMZ 평화의길' 등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한미동맹 현안 안정적 관리

바이든 행정부 초기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한다.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여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킨다. 또한 동맹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한 기간 신뢰를 공고히 한다.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군 협의를 통해 주민여망을 수렴하고 대체 사격장개발 등 근본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한다. 성주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장병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함,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인프라를 구축한다. 8대 핵심기술(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적용과 선도 기술 획득을 위해 신속시범 획득제도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시행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2040년 2차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맞게 육·해·공군부대구조를 획기적으로 설계해 나간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민·관·군·경 협조아래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각급 제대별로 지원TF를 편성하여 질병관리청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제적 진단검사를 신병교육 기관 기간요원, 교정시설 근무자, 직무·보수교육 간부, 격오지 부대 근무인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국가 재난수준의 보건 위협 시 부족한 간호 인력 증원, 전방 군병원 음압시설 확충, 감염병 연구시설 신축 등 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건설해 나간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군을 혁신하고 군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한다. 또 군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친환경적인 군을 운영해 나간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2021년에도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다. 병사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피복, 장구류 등과 군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간다.

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선호지역 장기거주를 지원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한다. 아울러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여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국방 및 공공분야(경찰·소방 등)의 일자리 창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안보전망대

“북핵, 바이든 취임 100일 이내 다뤄야”



미국 군축협회(ACA)가 1월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다뤄야 할 주요 핵관련 사안으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미국 군축협회(ACA)는 “북핵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는 조기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이 도발 등 먼저 행동에 나서길 기다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조율과 함께 미 북 관계 전환의 일부분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현명하고

더 실용적인 단계적(step-by-step) 외교전략을 추구할 것이라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신임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 또는 발언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및 평화, 역내 동맹에 대한 안보 등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위험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제한적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

미국 외교협회(CFR)는 올해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꼽았다. 미 외교협회는 1월14일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과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위협국가를 총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위협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게 평가돼 최고 등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지난 해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최대 위협군에 속했지만 실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은 ‘보통’으로 평가됐었다. 북한의 새 탄도미사일 개발 의혹은 작년 10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면서 나왔다. 또한 북한은 지난 14일 저녁 평양에서 개최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 개량형을 공개해 군사력을 과시했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북, 핵능력 강화 통해 미 압박 노선 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용환 연구위원이 북한이 최근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 전 지속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2021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현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내부 에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북 중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는 한편 핵능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기존 전략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관련하여 극북이 필요한 몇 가지 딜레마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 사이의 딜레마,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 사이의 딜레마, 긴 시간이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국,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짧은 정권교체 주기 사이의 불일치 딜레마 등을 지적했다.

국방단신

한미 국방장관, 동맹 재확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24일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 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 임자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현 안보상황 관련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1월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국방부-롯데장학재단 업무협약

국방부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은 1월22일 공상·순직 군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부터 공상·순직 군인의 중·고·대학생 자녀 중 연 100여 명에게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공상·순직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군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설립 이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소방·해경·독립운동가·6.25참전용사 자녀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달라지는 2021년 국방업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 개선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21년에는 장병 복지, 병무 행정,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인사복지제도

먼저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병들의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캠프셔츠를 확대 보급(1벌→2벌)하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칫솔, 치약, 샴푸 등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94,440원→138,600원)한다.

그리고 장병들의 휴식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14,678대를 신규 보급한다.

이에 더해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내륙' 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여 병상호 간 시행되고 있는 이발방식을 민간이·미용사에 의해 이발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병사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전투 위주 임무수행 전념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 및 대상인원을 지난해 대비 3배 가량 추가 확대('20년 : 80억원/8만명 → '21년 : 235억원/23.5만명)해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군 교육 훈련제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를 신규 설치해 훈련인소 간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확대 지급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한다. 그동안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했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한다.

병무제도

2021년 6월부터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된다.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또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

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는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동안 '고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입영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지역에 이어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2021년 하반기 추가 설치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방산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 학기술혁신 촉진법'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번 법 시행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해, 연구개발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국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이 연일 계속되는 한편 파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특전사 장병 379명은 지난 12월1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78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지원 임무에 돌입했다. 최초 계획된 장병들의 파견 기간은 한 달이었다. 따라서 14일을 기점으로 전원 임무 교대가 가능했지만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연장해 방역의 최일선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최초 파견 장병 중 임무 교대는 전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22명에 불과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해군7기동전단(7전단) 제주기지전대 화생방지원대 장병들이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를 맞아 제주 서귀포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위해 팔을 걷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7일 구좌읍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된 이후, 종달·애월 지역에서 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도내 AI 확산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전단 제주기지전대 화생방지원대는 지난 12월22일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강정동 일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매주 화·목요일 주 2회씩 AI 방역지원을 펼치며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설에 따른 도로 제설 대민지원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이 1월8일 광주광역시청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도로 제설 대민지원을 진행했다. 1전비 장병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노 플로, 스워드 로터리 등 제설 차량과 장병 40여 명을 투입해 부대 주변과 광주공항 일대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펼쳤다.

또 제설 작업 간 장병들의 방한·위생에 신경 써 안전한 대민지원이 되도록 했다. 장병들은 "국민의 군대로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혈증 1,300장 백혈병 어린이재단 전달

해병대 장병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해병대2사단 포병여단은 최근 전 장병이 자발적으로 모은 현혈증 1300여 장을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장병들은 지난해 부대가 추진한 생명존중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라 부대 현혈행사뿐만 아니라 휴가 중에도 현혈에 참여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휴가와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봉사과 기부에 동참하고, 조혈모세포 및 장기기증 신청으로 밝은 병영문화 정착과 생명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달라지는 2021년 보훈정책 ... 국가유공자 예우 받는 보훈문화 정착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 안장 및 사망 시 지원 강화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등 국가책임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의 일환으로 6·25전몰 순직군경 자녀, 고엽제 수당을 3% 인상했다. 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했으며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 수당도 5% 인상했다. 아울러 생활조정수당은 2%인상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도 1만원 인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일환

-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확대
- ▶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98개소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하는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위탁 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재활·요양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사업에 50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

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22년 시행을 목표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다음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 확대 등 사망시 예우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연천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연차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묘지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국립묘지 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 합동묘역 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또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으나 올

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2021년에 수권유족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끝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 호국 기념시설 건립·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의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원을 투입한다. 기념관은 총 457억 원의 예산으로 옛 서대문구의 회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D.C. '추모의 벽' 건립, 그리스군 참전비 이전 등 6개 사업에 301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도 유엔 참전용사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에게도 마스크 지원, 존경과 감사 뜻 전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유엔참전용사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에게 방역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방역 마스크 해외 반출이 제한되었던 지난해 5월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기억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마스크를 받은 수많은 참전용사와 벨기에 국왕, 미국 국무장관·보훈부장관 등 유엔참전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화, 서신, 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다.

이번에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하는 마스크 수량은 총 200만장으로 전체 유엔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장, 영국 등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장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량은 각국의 코로나19 현황 및 생존 참전용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지원 수준을

정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도 방역 마스크 지원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해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98세, 미국 거주), 오성규(96세, 일본거주), 김창석(94세, 미국거주) 선생 및 중국·러시아 등 15개국 유족 등 550여 명에게 마스크 3만 장을 이번 달 중에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방역 마스크 해외 반출이 제한되었던 지난해 5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기억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보훈단신

독립유공자 묘지 체계적으로 관리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 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

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 협의의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보존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사망한 독립유공자 1만6000여 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000여 명을 제외한 1만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국가보훈처는 1월5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지원 절차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①

우리 향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김 윤 한
서울시 향군 회장

2월 1일은 향군이 창설된 날이다. 향군은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인 1952년 6·25전쟁 중에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되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내고 지난 69년 동안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이나 국가안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 속의 향군'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고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이념적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정부의 올바른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안보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안보 계도 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의 향군은 지난 69년 동안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점에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향군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한 참신하고 지속적인 안보 활동이다.

향군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6·25전쟁을 통해 공산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태생적인 안보단체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1천만 회원이 자랑스러운 향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자부심으로 다양한 안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대 상황과 안보환경이 변하면서 우리의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증강에 대한 전쟁 대비 의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국민적 안보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 따라서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안보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보 활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공존하는 향군 육성이다.

현재 향군회원의 구성을 보면 6·25, 베트남전 등 참전유공자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들의 평균연령이 70을 넘고 있어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이들 대부분은 향군 활동을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신세대들의 회원 영입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신세대들의 영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은 직장생활하면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조직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향군회원 가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군은 신세대들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이다.

현재 향군은 본회 중심의 종적 운영으로 본회장이 바뀔 때마다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중·장기적인 조직운영이 아니라 4년 단임제로 되어있는 본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목적사업과 기본 사업계획이 추진되다 보니 장기계획에 따른 지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온 69년을 되돌아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적인 지혜를 모아 미래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한 다음, 이를 조직운영의 기본계획으로 삼아 시대변화와 당시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외에도 향군 조직운영의 기본이 되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자립기반 조성,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각급회의 지지체와 협력관계를 통한 조직 활성화 등 향군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라는 말처럼 새롭게 고친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희생과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나 현실여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향군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향군, 시 도회장 간담회 개최...현안 업무 토의

향군은 1월19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3개 시 도회장, 여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위례사업 등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함양군 향군, 함양읍 시가지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함양군, 위탁관리자로 향군 선정...주차환경 개선, 운영 효율화 기대

경남 함양군 향군이 함양읍 시가지 노상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로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년간 운영한다.

함양군은 2019년 7월부터 함양읍 시가지의 고질적인 장기주차 및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군 직영으로 운영했

으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그 주체로 함양군 향군을 선정했다.

함양읍 노상공영주차장은 함양중학교~두루침교, 낙원사 주차 및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군 직영으로 운영했

마음병원, 만경가요주점~대일떡방앗간 등 모두 402면이 운영 중이다.

함양군 향군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차장이 제 기능을 되찾고 장기적으로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향군 청년단, 보건소에 방한용품 전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싸움 이어가는 의료진 위로



충북 충주시 향군 청년회(회장 강연길)는 1월13일 충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열 깔창 200개와 손난로 80개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6.25 행사와 참전유공자 위로

연 행사 등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안보 유지활동에도 앞장서는 모범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청년회는 이번 위문품도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했다.

강연길 청년회장은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소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향군회관 커뮤니티센터로 거듭난다

2022년 완공 입주... 시민 소통의 장으로 변신

경기도 의왕시 향군회관이 확장 신축을 통해 시민의 소통의 장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난다.

내년 1월 설계용역 준공 및 계약심사를 거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주차장 등이 마련되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층 다함께 돌봄 센터와 육아 나눔

터, 3층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4층에는 생활문의센터, 5층은 대강당과 의왕시 향군이 입주한다.

커뮤니티 센터는 부지면적 993.7㎡에 연면적 2천840㎡의 지하 1층·지상 5층 등의 규모로 국비 27억5천만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55억9천100만원 등 모두 93억4천100만원이 투입된다.

미 새크라멘토 향군, 이웃에 마스크 전달

지역 한인회와 연말을 맞아 나눔 실천 행사 펼쳐



미 북서부 새크라멘토 향군(회장 박상운)은 지난 12월 말 지역 한인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 행사를 가졌다.

새크라멘토 향군은 이날 스마일

마켓 앞에서 지역 동포들에게 마스크 3,000장을 배포했으며 박상운 회장은 “마스크를 건넸을 때 동포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서로 힘내자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져 코로나 시국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여성봉사회(회장 레이첼 장)와 함께 새크라멘토 지역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 한인회에서 준비한 마스크와 쌀 150포를 전달했으며 여성봉사회는 굴 150포대를 준비해 한인회와 함께 노인들에게 배포했다.

청주시 향군 청년단, 연말 나눔 봉사

관내 불우시설에 마스크 등 생활용품 전달



청주시 향군(회장 채수민) 청년단이 12월24일 연말을 맞이하여 관내 방문요양센터를 찾아 기초수급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KF 94 마스크 및 간병에 필요한 물티슈를 전달했다. 이어 충북 육아원을 방문, 아이들을 위한 햄버거 간식과 크리스마스 선물 키트 및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박준병 청년단장은 “올 한해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단원들이 정성을 모아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다”며 “추운 겨울 이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향군 청년단은 2020년 한해 동안 방역 및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강원도 속초시 향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강원도 속초시재향군인회(회장 이근철)는 1월25일 강원도 속초시청을 방문, 신축년 새해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전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동참해주세요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채취 참여

- 채취대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친·외가 8촌 이내)
- 참여방법**
 - 직접방문 :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예비군 동대,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전화신청 : 1577-5625(시료채취키트 발송/방문 신청)
 - ※ 참여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지급
 - ※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 현역장병**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신청(참여시 기념품 및 위로휴가 제공)

유해 신원확인 시 1,000만원 포상금 지급 | 대표전화 1577-5625 (오! 6·25)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12월21일 ~ 1월20일)

부산시 향군

진구회 : 1월4일 동회장 및 예비군 지휘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회원 확보 방안 등 2021년 회무 논의.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월18일 관내 식당에서 전직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현안업무 토의



중구회 : 1월14일 향군회관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김 40뿍음을 마련, 대구시 중구 보훈 5단체에 전달.



서구회 : 12월22일 대구 서구청을 방문,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성금 200만원 기탁.

경기도 향군

여주시회 : 1월15일 여주 중앙한방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역 공공의료 발전 및 향군 회원 우대 혜택 협약. 1월14일 독거 노인 가구 밑반찬 배달봉사 실시. 12월23일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훈회관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및 코로나19 신속 PCR 검사 실시.

강원도 향군



속초시회 : 12월22일 연말을 맞이하여 6.25 참전 전우회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태백시회 : 여성회 박정숙회장 태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 봉사활동 최선 다짐.

충청북도 향군



충주시회 : 12월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군회관 상가 임차인에게 위로금 550만원 지원.청년회는 12월24일 생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동이 가족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음성군 금왕읍회 : 12월21일 음성군청을 방문, 지역 내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덴탈마스크 10만매를 기부.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충남도회 : 1월4일 대전지역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대전 보훈공원을 찾아 헌화 분양을 하며 신년 참배행사 가저.

서천군회 : 장항읍회는 1월12일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 200,000원을 대전 MBC에 기탁.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1월5일 새해를 맞아 임실호국원을 방문, 참배하고 호국영령 추모.



전주시회 : 1월12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방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덴탈마스크 4000매를 전달.



익산시회 : 12월23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향군회관 보수공사를 마치고 준공식. 12월28일 익산시청을 방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마스크 4,000매를 기탁.

남원시회 : 12월29일 오정수 향군자문위원장이 남원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2020년 봉사대상 표창장을 받아.



군산시회 : 여성회는 12월23일 군산역전 경로식당에서 무료 도시락 배식 봉사활동 전개.

순창군회 : 12월23일 안보단체협의회에 참석하여 안보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안보의식에 대해 토의.

장수군회 : 1월15일 민주평통 등 지역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현안 간담회를 열어.

완주군회 : 1월15일 완주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출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로. 여성회는 1월18일 신임 재미화 회장 취임식 거행.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1월4일 새해를 맞아 상무공원 기념탑, 광주공원 기념탑, 5.18묘지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기간: 2019. 7. 24.~2022. 12. 31.

국민 참여 방법

-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무공 수훈자 혜택 :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상담 문의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등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려.



광양시회 : 12월22일 광양읍 사무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갖고 소외;계층에 후원물품 지원. 1월4일 새해를 맞이하여 현충탑 참배.

담양군회 : 12월23일 향군회관에서 도회 김종길 안보부장을 초청, '코로나 사태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안보강연.

경상북도 향군



영천시회 : 1월11일 조국수호에 주역이 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영천시 장학회에 기탁.



포항시회 : 북구 우창동회는 1월20일 여성회와 함께 우창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우창동 기부천사릴레이 사업 기부금 20만원을 각각 전달.

경남 울산 향군

창원 의창·성산구회 : 12월24일 연말 연시를 맞아 읍 면 동회에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행사 실시.

통영시회 : 1월4일 새해를 맞이하여 통영시 총헌담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려.1월14일 손도수 도회장의 방문을 맞아 2021년 사업계획 및 회무 보고 및 건의사항 전달.



하동군회 : 1월12일 손도수 도회장의 방문을 맞아 2021년 사업계획 및 회무 보고 및 건의사항 전달.

김해시회 : 1월13일 손도수 도회장의 방문을 맞아 2021년 사업계획 및 회무 보고 및 건의사항 전달.

거제시회 : 1월14일 손도수 도회장의 방문을 맞아 2021년 사업계획 및 회무 보고 및 건의사항 전달.

함안군회 : 1월15일 향군회관에서 아라한국병원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식.

하동군회 : 12월27일 하동군에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 200,000원 기탁.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1월14일 시회장단 및 여성회장 간담회를 갖고 2021년 안보활동 방향, 사업내용 등 현안 토의.

향군역사 바로알기 27

향군 업무 전산화 추진 배경과 과정

향군 업무 전산화의 시작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초 우리 사회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정부조직, 기업, 공공단체 등 대부분이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 다퉈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향군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1985년부터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본부 직원 중 전산업무에 능력 있는 인원을 선발하여 28주간 서울컴퓨터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퍼스널 컴퓨터 등 필요한 기본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1985년 전산화 추진, 인프라 구축 업무능률 극대화 및 조직체계 구비

이러 향군은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전산체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향군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 정보화시대에 대비, 고도의 정보관리체계 및 혁신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 구비 ▲ 회원의 질적관리 향상과 회(會) 재산 관리체계 개선 및 업무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 추진 ▲ 향군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되는 업무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87년 3월 18일 향군 5개년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 전산화 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사무자동화는 물론 회비 결산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들어 본회는 전산업무의 정착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회원관리, 회비수납, 고정자산 관리, 예산, 회계, 급여 등 인사행정관리와 각 국실의 업무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필요한 전산 장비도

꾸준히 보강하였다. 또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빨리짐에 따라 본회도 시스템 보안은 물론 직원들의 전산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처음으로 향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각급회의 전산업무도 적극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갔다.

2004년 2월 1일에는 향군 홈페이지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여 새단장하였다. 우선 향군보(현재 재향군인신문) 영문 메뉴 추가, 각급회 소식 및 커뮤니티 추가, 검색 서비스, 메일, 온라인 투표 서비스 기능,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향군 그룹웨어 시스템 연동 등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1999년 홈페이지 구축, 대외홍보 각급회 전산업무 적극 지원

200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이 생활 속에 보편화되고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각 기관 및 단체에 보안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군은 2015년 12월 보안 강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홈페이지도 현실에 맞게 콘텐츠를 구성하여 3개월간에 걸쳐 재구축하였다. 이것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수정소요가 있을 때 마다 일부 보완하여왔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향군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회원가입 및 대외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새로 개발한 모바일 앱은 간편하게 정회원 가입은 물론 본부 및 각급회 소식, 연락처, 향군 가맹점 등 전반적인 향군 활동과 복지혜택 정보를 내 손안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전망대 8월14일 운영 재개

강원도 고성군 대표 평화안보관광지인 통일전망대가 172일 만인 2020년 8월14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통일전망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통일안보 체험장!

033)682-0088

친목단체 활동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대한민국 성우회는 1월4일 신년을 맞이하여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대령연합회(회장 유승일)는 1월4일 새해를 맞아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렸다.

회장 이 취임식 및 정기총회



육군인사병과동우회(회장 김기돈)는 1월20일 정기총회 및 전임 김기춘 회장과 신임 김기돈 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한동주)는 1월6일 새해를 맞아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렸다.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 포병전우회 : 2월2일 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개최.
- ▲ 해병대전우회 : 2월19일 정기총회 개최(예정)
- ▲ 육군정보통신장교동우회 : 2월23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개최.
- ▲ 정보동우회 : 2월24일 '일품헌' 에서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 개최.
- ▲ 갑종장교전우회 : 2월25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향군장학기금 기부

('20년 12월 21일 ~ '21년 1월 25일)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권율부대 김홍수 1 (5)
- 권율부대 강모아 1 (66)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 (276)

▶ 단체

- 성남시회 우건식 20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 (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회 마스크

향군 마스크(강한 숨결)가 출시되어
향군 회원 및 향군 가족
그리고 여성회원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덴탈 마스크 (단가 : 150원)

박스	1박스	5박스	6박스	7박스	8박스	9박스	10박스	
수량	50	250	300	350	400	450	500	
가격	7,500원	37,500원	45,000원	52,500원	60,000원	67,500원	75,000원	
택배	착불						무료	
비고	* 제주 지역은 택배비가 3,000원 별도입니다.							

□ KF94 마스크 (단가 : 440원)

구분	1박스	2박스	3박스	4박스	5박스	10박스
수량	50매	100매	150매	200매	250매	500매
가격	22,000원	44,000원	66,000원	88,000원	110,000원	220,000원
택배	착불				무료 택배	
비고	* 단가 절약을 위해 5개씩 포장 하였습니다. * 제주 지역은 택배비가 3,000원 별도입니다.					

○ 국민은행 : 801701-04-1723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장

전화 : (02)417-1022 / 팩스 : (02)425-0541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28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신세계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92) 1566-9988 : 수술비우대 적용

· 나움내과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 네오타워빌딩2층) 031-928-5628 : 10~15%

· 성모편한내과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30 우리프라자4층) 031-3203-1275 : 10%

· 추부의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6) 041-753-6566 : 진료비 10%

식당/음료

· 한마리정육식당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번길 16) 031-821-1588 : 10%

기타

· 금성공업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11) 043-732-4444 : 10%

· 스위스안경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27-3) 043-733-7805 : 3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

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① 온달산성

한강유역 패권 놓고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하게 맞붙은 격전장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후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의해 다시 축성

온달산성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삼국시대 테피식으로 축조된 신라의 협축 성곽이다. 온달산성은 온달이 배수진을 치고 신라군과 싸우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져왔다. 그래서 이름도 온달산성이다. 그러나 남한강 건너 북서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성의 위치나 북서쪽에만 문이

없고 성벽도 특히 높은 점, 성벽의 축조방식이나 배수구의 양식이 경주 남산성이나 보은의 삼년산성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점으로 보아 신라 쪽에서 쌓은 성으로 보인다.

즉 남쪽에서 진출해온 신라가 강 건너 북쪽을 노려보며 전초기지로 쌓은 단성면의 적성산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므로 온달은 이 성을 쌓았다기보다 이 성을 치러다 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온달산성은 사적 제2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산성은 해발 427m의 성산 정상부에 반월형으로 축조됐다. 성벽은 남고북저의 지형을 따라 쌓았으며 남쪽 봉우리 정상부와 북쪽벽의 안쪽에는 평탄한 땅이 자리하고 있다. 서북쪽은 남한강에 접한 가파른 절벽이며, 동쪽과 남쪽 성벽은 잘 다듬은 성돌을 쌓아 올렸다.

온달산성은 성벽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고대 성곽의 축성법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성벽의 축조 방법이나 보강 축조 모습, 유물의 출토 현황 등으로 보아, 처음에는 고구려에 의해 축조되었지만,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의해 다시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6세기 중엽 경 신라와 고구려의 각축과 함께 신라가 남한강 유역 이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지방 지배를 추구하였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산성으로 평가된다. 온달산성에서 595번 지방도로를 따라 영월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른

쪽으로 남한강 줄기를 볼 수 있는 길이다. 이 구간은 우리나라 여느 강에서는 보기 드문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장관인데 오가는 차들 또한 많지 않은 곳이라 온달산성을 찾는 길에 일부러라도 둘러보기를 권한다.



건강정보

고열과 인후통, '급성편도염' ... 충분한 휴식과 청결이 최대 예방법

증상

급성편도염은 고열과 오한, 인후통이 나타나고 인두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연하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전신 쇠약감,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보이며 혀의 표면이나 구강 내에 두껍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을 수 있고 압통을 동반한 경부림프절 비대 역시 흔하게 나타난다. 4~6일 정도 지속되고, 합병증이 없으면 점차 사라진다.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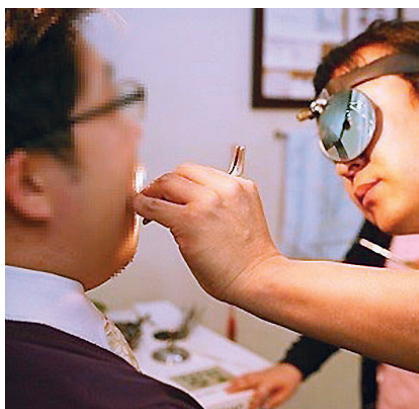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생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은 바이러스(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그 이후의 아이들은 세균(A군 beta-용혈성 연쇄상구균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직접 전파보다는 비말감염으로 전파된다. 급성 편도염은 대개 청년기 또는 젊은 성인에서 잘 발생하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다.

진단

급성기에는 인후 검사상 충혈되고 비대해진 편도가 관찰되고 부분적으로 흰색 삼출액으로 덮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출액이 덮힌 정도는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출액은 대개 편도외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편도음와의 입구부에 생기며 여포성 막형 위막형 편도염의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농양 형성이나 심경부 감염 등의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화 단층촬영(C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말초혈



치료

급성편도염의 치료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편도선염은 대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한다. 구강 가글제를 사용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방법

계속 피로가 쌓이거나 심한 온도변화에 노출됐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면역질환이 있을 때 편도염이 잘생기므로, 평소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편도선염이 있을 때에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구강 가글제를 사용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우여! 어디에 ...

◆ 1973년부터 1975년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등촌동 국군수도통합병원 수송부에서 2호차 운전병(부원장 신현필 대령)으로 근무했던 김민태씨가 같이 근무한 김민석 김창락 조창현 맹순호 우관철 이상윤 김해성 김재현 이상윤 고락규 차진병 이영호 정대식 김기중 김찬수 최승룡 등 전우들을 찾습니다.

<김민태 010-4359-8900>

◆ 이민석씨가 1989년 5월부터 1991년 11월경까지 15사단 38연대 1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했던 제연진 병장을 찾습니다.

<이민석 010-8847-3949>

◆ 경남 사천에 거주 중인 박종호씨가 506항공대대에서 함께 근무한 김 현 상사를 찾습니다.

<박종호 010-9788-5117>

◆ 백성현씨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36포병관측대대 A포대에서 함께 근무한 전우들을 찾고 있습니다.

<백성현 010-7747-6333>

안보정보보고 / 2021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노골적인 국방력 강화 천명...단호한 국가안보전략 수립, 유연 대응해야

지난 1월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기적'이었다고 경제 실패를 자인했으며 그간 '쓰라린 교훈'을 얻었고 단호한 대책을 세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2020년은 최악의 한 해를 보았음을 보여준다. 그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남북관계는 2018년 이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막혀있는 형국이다. 북한 역시 UN제재와 더불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상황 속에서 견뎌왔음이 김정은의 대회사에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다.

또한 이번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관련한 내용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라고 명시해 국방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음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

2021년은 김정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시기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절대 권력을 세습 받은지 꼭 10년이 되면서 어느 때보다 실적과 비전 제시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난 해 12월 발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동북아 안보정책분석 자료인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외 정책 전망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의 사업총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 관계에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있으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방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의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여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신형 무기 도입을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남북합의를 잘 이행한다면 다시 평화의 봄날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1년 북한의 대외 정책의 선택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대화 없이 관망하기이다. 북한이 대내 안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면서 외부 정세의 변화를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21년 초에는 일단 관망하기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2020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 주요 회의의 안전에서 드러난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이며, 주요 국제회의가 연기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의 기회는 2021년 상반기에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협상 TF를 구성하는 방식 등으로 미북간 접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착수할 수는 있으나 정권 이양기에 트럼프정부에서 추진해온 글로벌 전략을 재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북한 문제에 몰입하는 것은 피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강경한 행보를 보이면서 버티기이다. 미국과의 대화가 신속히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키기 위해 강경한 행보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와 ICBM의 실험 중단이라는 소위 '레드라인'을 당분간 준수하면서 정세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자 외부적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고강도 도발을 시도해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의 신행정부 하 한미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재개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안보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 북 대화의 조

숙한 재개를 견인하기이다. 북한이 한국을 활용하여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모멘텀을 다시 살리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만약 북한이 단순히 '바이든 신행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초기부터 군사도발을 시도한다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협상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어 도발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미국의 대북억제 강화 움직임을 촉진하게 되어 리스크가 크므로 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으로서 군사적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대화 재개의 기대효용성이 클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치가 높아질 한국의 대미 대화체널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대내 행보 전망

북한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공언하며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항구적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4월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정책 과업을 조정·변경'한다고 결정했고,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성장 목표 미달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9월에는 '전면적으로 정책과업을 수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 1월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대회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라는 표현을 써가며

ATACMS 및 KN-25(초대형 방사포)의 시험발사에 이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발미로 실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화성-16형) 및 SLBM(북극성-4사),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공개 등이 뒤따랐다.

북한의 군사행동은 신형무기체계 특히, 한미연합대비 전략적·전술적 비대칭성을 확보·강화할 수 있는 신형유도무기의 개발 및 시험발사 관련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 및 과시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보여주었듯이 신형무기와 군복, 장비의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와 질과 양이 변해갈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시사한다.

최근 북한 국방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과 그 변화양상을 보면, 북한 내 전략물자 비축정도에 따라 향후 유도무기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 다양한 유도무기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해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술혁신형 개발은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북한이 전략급 유도무기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왔다면, 작년에는 전술급 유도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앞으로는 첨단유도무기 개발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대미 전략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라는 중간단계가 필요하게 되며, 북한은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한국의 실질적 역할을 부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향후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한편,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력 증강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연합대비 북한이 주요 유도무기 전력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확대·강화하려는 전략을 상쇄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군도 진화적 개발을 통한 유도무기의 선제적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되는 북한의 무기체계 수준을 고려하여 한미 확장억제 협의 수준을 제고하고,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 대응 옵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거부적 억제 수단인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방공용 첨단유도무기, 고에너지 레이저·고출력 전자파를 사용하는 지향성에너지무기, 동시다발적 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고속탄 도입·개발 검토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중간 목표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의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설정한 최종 목표에 북한보다 한 발 앞서 도달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유도무기 관련 기술 개발 속도를 추월한 이후 북한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확대하는 '초격차 전략'의 추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신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실전 배치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신형유도무기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력화될 경우,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이 급속하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협상타결 이전의 단계에서 대북제재는 큰 틀에서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한국은 수출통제 선진국으로서 기존 대북제재 허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제 레짐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논리가 강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핵화와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추진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 신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평화체제를 연계한 해법을 구상하는 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은 확고히 지키되,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법을 실무차원에서 조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유엔 산하 기구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지원액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유엔을 통한대북 지원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대북 협상에 있어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재난관리 협력을 대북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 흉수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의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 북한의 상황, 우리의 안보현실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되 단호한 국가안보전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동북아정책분석(2021 북한의 안보정책 전망), 2020. 12. 15, 한국국방연구원,

* 본 안보정책 분석은 대한민국의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또한 김정은의 제8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원칙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유지되었으며 국가적 위기 속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도 유지되었고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여 총비서직을 부활함으로써 자신의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화 해 간접적으로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북한이 당면한 대내 이슈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사태 및 자연재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자강력'을 강조하며 '80일 전투'와 같은 대규모 주민 동원을 강행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정권의 경제개발 추진계획 성과가 미흡하고 자체적 대응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러 지표들을 볼 때에도 2021년 북한 내부 사정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필수 원자재 수입 부족에 따른 생산력 저하, 식량수급 악화 및 생활필품 부족, 주민동원의 피로도 상승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원 및 질서유지를 위한 내부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이 북한의 대내외 정세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가운데, 북한이 자신의 독자적 영역인 군사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전망

2020년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행동은 수차례의 화력 타격훈련과 사실상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른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집중되었다. KN-24(북한판

특히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내린 결론은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들어주고 나가야 한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듯이 이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무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대남 억제력을 더 키우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으로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16형의 시험발사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6형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의심받은 재진입체 관련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화성-15형의 경우처럼 최대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후 동해상에 탄착시키는 형태가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북한이 지켜온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북극성-4사의 경우, 북한은 현재 개발 및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탑재하여 최대사거리 및 탄두 대기권 재진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시험발사를 시도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만약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다양한 경로 및 궤도로 운용하여 단일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보다 확대된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북 양자가 중심이었으나 바이든이 그 동안 동맹관계를 희생하는 '동결 대 동결' 제안에는 반대해왔으며 충분한 다자적 실무 협의를 토대로 미 북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는 점을